

■ 가/족/탐/방

권태강 고문의 5대(조부祖父, 부父, 본인, 자녀, 손자)를 찾아서



다. 그동안 큰 며느리 이영희의 내조가 컸다. 장손자 민철은 흥익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전공한 후 ‘우아한 형제들’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장손녀 규리는 건국대학교에서 생물공학을 전공하고 DM바이오 회사에 근무 중이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대카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둘째 영필과 며느리 최윤정

은 손자 민수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들과 기뻐하기에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

고 있다.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전자금융회사 핀크(Finn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막내 영탁과 며느리 장은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손녀 민지와 초등학생인 손자 규민이와 함께 오순도순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막내는 대학 4년 동안 총평점이 4.28로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한다. 막내는 결혼 후 15년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6시를 전후해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꼭꼭 하는 효자라고 한다. 요즘 CEO로서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딸 영옥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의류디자이너로서 사업하고 있다.

가로 활동 중이다.
권태강 고문은 미수(米壽)를 그저 후손
들과 기뻐하기에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



사율삼(四勿咸) 명릉

인류사에는 정사와 야사와 가족사가 있습니다
가족사는 족보이고 한국은 족보의 첨단선진국입니다

추밀공파 양촌문충공계 창수공족보를 만듭니다

창수공은 양촌 문충공의 4남 안숙공의 손자로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감내에 산소가 계신
광홍창수 휘 억憶을 계파조로 하는 1만5천 자손입니다

**이번 족보는 한글판한자병기 전산보로서
책자는 첨단출판체재로, 전산판은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열람되는 영상본로 병행제작됩니다**

예감하고 “나는 죽지마는 꼭 내 눈을 뽑아 두었다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리라” 하며 눈물을 흘리니, 온 좌석에 있던 이가 모두 눈물을 흘려 웃깃을 적시었다.(연려 실기술)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동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권달수(權達手)는 강의(剛毅)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폐조(廢朝) 때 바른 말을 많이 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당하니 지금까지 사람(士林)들이 애석하게 여기고 있다. 그의 아내 정씨(鄭氏)도 행실이 어질었는데, 남편의 불행을 듣고 굶다 죽었다.”(중종 12년 1월 22일, 무술 4년째 기사, 151기기)라고 보아 정씨에 대한

은 바로 양의당을 두고 한 말이라고 채산은 술회한다. 채산은 양의당이 평생 인도(人道)의 근본인 효(孝), 우(友), 충(忠), 신(信), 근(勤), 검(儉), 공(恭), 서(恕) 여덟 자를 몸소 실천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권태강 고문의 아버지는 애산(愛汕) 권중구(權重求, 32세, 1914~1977)이다. 양의당의 부인이 진성이씨이므로 애산은 퇴계(退溪)의 외손이 된다. 권태강 고문의 어머니는 풍산류씨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후손 류한이(柳漢伊)이다. 그래서 권태강 고문은 서애의 외손이 되기도 한다. 애산은 서울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한 후 중동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예천 대창중학교 교감을 역임한다. 애산은 한학(漢學)을 정식으로 배우지는 못했고 가학(家學)으로 한문을 익혔다고 한다. 그럼에도 중동고등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쳤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1971년 초학자를 위해 『한문대강漢文大綱』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한마디로 대작이다. 한문문장을 영어문장과 비교하여 주어, 동사, 목적어 등 문장구조와 문법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애산이 영어와 한문에 능통했다는 의미이다. 애산이 자손들에게 남긴 또 하나의 유품은 사물잠(四勿箴)을 붓글씨로 직접 쓴 병풍이다. 권태강 고문은 보고(視), 듣고(聽), 말하고(言), 행동하는(動) 것에 대해 항상 경계하는 사물잠(四勿箴) 병풍을 방에 펼쳐두고 늘 아버지의 가르침과 함께 호흡했다. 자식들 또한 할아버지가 남기 사물잠 병풍 아래에서 자란다.

권태강 고문은 가족은 늘 공경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아버지 애산 선생이 동양과 서양, 한문과 영어를 가로질러 소통했듯이 권태강 고문 역시 남녀노소가 서로 소통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미수(米壽)인데도 늘 공부하며 자식들과 또 며느리하고도 대화하고 있다.

권태강 고문은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안동권문의 자손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안동권씨 대종회 고문이자 경교공파회장으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시조 태사공 춘추향제와 파조 향사 등에 단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참제했다. 2019년 시조 추향제(秋享祭) 봉행 시에는 수임(초현관)을 맡은 바 있다. 조선시대 국가 제례인 종묘 추향대제에 문종대왕과 문

종대왕비(妃)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顯德王后)의 신위(神位)에 안동권문의 대표로 아현관을 맡아 제례를 봉행했다.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제례에는 안동권문 최초로 아현관이 되어 현작(獻爵)하였다. 청백리 권빈을 비롯하여 동계 권달수 등은 자랑스러운 가문의 현조(賢祖)이다. 할아버지 양의당과 아버지 애산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언제나 조상들을 공경(恭敬)하며 살았다. 권태강 고문 또한 미수(米壽)에 서서 인생을 뒤돌아보니 자녀와 손자들에게 물질적인 재화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상을 공경(恭敬)하고 청백리, 절의, 군자와 같은 정신은 온고지신(溫故知新)하여 계승 발전시키며 가족 간에는 소통하고 돈독하게 화합하는 가풍(家風)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이자 가족이 면면히 지켜야 할 철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자 민철과 민수 그리고 규민, 손녀 규리와 민지도 또 그 다음 후손들도 그 역사의 길을 강물처럼 이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형 골기와집으로 지어진 부조지전(不祧之典, 불천위사당, 10평)을 중심으로 전사청(典祀廳, 15평)과 종택정침(20평)을 두고 솟을대문을 배치한 사정공司正公 종택이 완공되기까지는 6년이 걸렸으며 예산 7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 들어갔다.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비봉산 자락에 있었던 사정공司正公 종택은 이 일대가 지난 2005년 산업공단이 조성되면서 2009년부터 이주를 시작, 사정공司正公 재사는 안강읍 양월리 귀성산 산려에, 종택은 지금의 자리로 옮겨 짓게 됐다.

종택 이전에서 준공까지 지난 10년간 종중을 위해 헌신한 권용근權容根 유사에겐 귀봉공龜峯公(경주병마절제사慶州兵馬節制使, 휘諱 덕린德隣)유집에서 기록된 명언(名言) 액자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불천위사당(배향위配享位, 진천현감鎮川縣監 휘諱 응생應

生)에 고유제를 먼저 올렸다. 초헌관엔 권용진權容珍(종손), 아헌엔 권만택權萬宅(호계사 위원장), 종헌엔 권오신權伍信(대종회 부회장), 대축엔 권용호權容浩(후손) 주최로 마약난이 개최되었다.

사정공司正公 종택宗宅 주고



경주시 안강읍 두류길에 마련된 사정공
司正公 종택 준공식이 5월 18일 오전 11시
종손(권용진權容珍, 70)과 권혁근權赫根
부사제(의의장) 권혁근權赫武(은교서의인)

원장, 권혁조 權赫照 오천서원장, 권오신 權
伍信 좌윤공파종회 회장 등 100여명의 후
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200평의 부지에다 가장 윗자리에 맞배